영남일보
The Yeongnam Ilbo

2007년 02월 09일 005면

'한나라 공천' 사활 건 줄대기

4·25 재보선 출마예상자들, 국회의원들 안 만나주자 보좌관·측근 접촉

공천경쟁률 높아질듯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잇따르면서 오는 4월25일 재·보궐선거에 나설 출마예상자들이 얼굴 알리기와 공천을 따내기 위한 정치권 줄대기에 부산하다.

특히 이번 보선은 예비 대선주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 공천=당선'이라는 인식 아래 한나라당 공천을 받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이들 출마예상자는 최근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이 대선후보와의 역학관계와 대선후 치러지는 18대 총선과의 연계성 때문에 접촉을 꺼리자 국회의원 보좌진이나 측근을 통해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또 봉화군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출마 예상자들은 아직까지 현직 단체장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점을 의식, 공식적으로 출마의사를 표출하지 못한 채 자신의 측근과 지지자들을 은밀하게 접촉하면서 지지세 확산에 나서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출마 예상자 대부분은 이전에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다가 낙천했거나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인물이다. 이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선거구가 많아 선거준비 기간 부족으로 신규 진입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공천 경쟁률은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월등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단체장 출마 예상자는 지역별로 3~8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달 말 대법원에서 군수직을 상실한 봉화군의 경우 류인희(전 군수)·엄태항(전 군수)·박현국(전 언론인)·우종철(정당인)·김천일(군의회 의장)·정해수(전 경찰 간부)·이교완(봉화군농업기술센터 소장)·김동태씨(건설업) 등 8명이 거론되고 있다.

현 시장이 2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문경시장 자리에는 채희영(전 경북도의원)·이상필씨(점촌농협 조합장) 등 5명이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현직단체장이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심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청송군수 자리에는 배대윤(전 군수)·이재홍(전 한전기공 감사)·안의종(전 군수)·권오영(전 청송축협 조합장)·조국래(청송군 기획감사실장)·박승학(전 경북도의원)·한동수(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우병윤씨(영주 부시장) 등 8명이,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영양군수 자리에는 김용암(전 군수)·남정태(바르게살기영양군협의회장)·김공박(전 칠곡 부군수)·이병서(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희지(전 영양 부군수)·이호근(전 경북도의원)·권경호씨(전 경북도의원) 등 8명이,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청도군수 자리에는 정한태(전 청도군의회 의장)·김하수(청도군장애인협회장)·장경곤(전 경북도의회 사무처장)·양재경(전 경북도의원)·이광호(청도읍장)·박영봉(영남대 교수)·박재종씨(경북도공무원교육원장) 등 7명이 각각 출마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광역의원을 다시 뽑아야 하는 대구 서구2선거구에는 나종기(한나라당 대구시당 홍보위원장)·박주영씨(전 대구시의원)가, 재판이 진행 중인 청도2선거구에는 이광동씨(감정평가사) 등의 출마여부가 관심사이다.

기초의원을 다시 선출해야 하는 대구 수성구 나선거구와 재판 결과에 따라 다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대구 남구 가선거구를 비롯해 포항 북구 다, 영주시 가, 영천시 라, 청도군 가, 성주군 다(재판 진행 중), 경산시 다선거구에서도 출마 예상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김상진기자 sjkim@yeongnam.com